

건강 칼럼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면 수면내시경 주의해야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면 내시경검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한다. 내시경 시행 전에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있는 내원자를 구별해 되도록이면 일반 내시경을 권유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수면내시경을 시행해야 할 경우 고려사항과 주의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수면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은 수면 중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폐쇄돼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질환이다.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주간 졸림, 집중력 저하, 피로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당뇨병 등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수면 중 기도 폐쇄가 쉽게 발생 할 수 있어 수면 위내시경 검사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면내시경 전 수면무호흡증 확인

내시경검사를 받는 일반인 중에는 자신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대표적 증상 등을 문진해 파악하고 문진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내시경검사 시행 전에 내시경으로 구강과 혀뿌리 등을 확인해 수면무호흡증의 정도를 파악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



정진명

건강관리협회 세종지부 진료과장

이 의심된다면 수면내시경보다 일반내시경을 권유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부득이하게 수면 위내시경을 시행해야만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고령, 비만, 두꺼운 목둘레, 혀뿌리 비대 등 기도 폐쇄를 악화할 수 있는 인자 등이 있다.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 결과를 분석하고 문진시 수면무호흡증의 중증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역류성식도염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 중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고 이를 흡인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8시간 금식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특히 기도 폐쇄·흡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식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필요시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사용해 위 배출을 촉진한다.

수면유도제를 선택할 때는 프로포폴(Propofol)이 진정 효과가 빠르지만 호흡 억제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하며 미다졸람(Midazolam)은 진정 효과는 있으나 기도 이완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도 폐쇄와 저산소증에 주의
내시경검사가 시작되면 왼쪽 옆으로 누운 자세(Left Lateral Decubitus Position)를 유지해 기도의 자연스러운 개방을 유도하며 턱 밀기(Chin lift) 또는 하악 전진법(Jaw thrust)으로 기도 폐쇄를 방지한다.

수면유도제는 천천히 적정 용량 만큼 부여하면서 기도 상태와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하며 과도한 진정으로 인한 기도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용량을 조절한다. 산소 공급·기도 확보 준비를 위해 산소포화도(SaO2), 심박수,

호흡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필요시 산소를 공급해 저산소증을 예방한다.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산소 공급을 강화하며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면 기도 확보 장비를 사용해 기도를 열어준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저산소증이나 호흡정지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응급 상황 발생시 기도 확보·소생술이 필요하므로 기도삽관 또는 기관 내 튜브 삽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장비를 준비한다.

수면 위내시경 후에는 진정제의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 회복실에서 산소포화도와 호흡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저산소증이 지속되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즉시 산소 공급을 강화하고 필요시 응급 대처를 한다. 머리를 약간 높은 자세(Semi Fowler's position)를 유지하며 기도를 개방한다.

결론적으로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수면내시경을 시행할 때는 일반 환자에 비해 기도 폐쇄나 저산소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평가, 약물 선택과 용량 조절,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기도 확보 장비 준비, 응급 대처 계획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면내시경보다는 일반내시경을 권유하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설

계엄부터 파면까지 122일

12.3 비상계엄부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 총 122일이 걸렸다.

계엄의 발부터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2024년 12월 3일 밤, 예고 없이 찾아온 대통령 탄핵 끝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다. 밤새 이어진 혼란과 동요, 그리고 분노에 시민들은 날이 밝자마자 거리로 나왔다.

"시민 여러분 민주 공화국을 파괴하는 윤석열을 타도합시다." 제주 4.3과 4.19, 광주 5.18을 거치며 일궈온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일 저녁 거리에서 울려 퍼졌다.

"탄핵해, 탄핵해, 윤석열을 탄핵해." 하지만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대통령의 궤변을 옹호하는 여당 의원 대다수의 무책임한 모습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차례차례 외쳤다. "조폐속 의원! 어서 돌아와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을 침탈했고, 구치소 밖으로 나온 대통령은 특정 세력을 향해서만 고개를 숙였다. 평범한 시민들은 비상계엄 후 매 주말마다 서울을 오가며 거리를 채우고 행진했다.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선고 지연으로 억측과 상상이 난무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나선 시민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 높여 불안을 이겨냈다.

38일간 침묵을 이어온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시민들을 향해 말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한 것이다.

공매도 재개 이후

지난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이전보다 많은 수준의 공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6조 4,082억 원으로, 일평균 1조 2,816억 원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90%, 코스닥에서 87%를 차지했다. 한 주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조 8,625억 원의 자금을 순수하게 유출했다. 코스닥에서도 6,417억 원을 순매도했다.

미국 상호관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재개된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하락 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은 1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순매도했다.

공매도(空賣渡)는 영어로 숏셀링(Short selling), 줄여서 숏(Short)이다. 재화를 미리 매도

하여 현재 가격만큼의 돈을 받고, 나중에 같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여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선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전산화 되어있지 않아 수기로 기록한다는 약점을 노리고 진행하기도 한다. '없는 것을 판다(공매: 空賣)'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소유하지도 않은 재화의 소유권을 남에게 넘겼으니, 결제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그 재화를 음수만큼 보유한다. 공매도의 목적은 현재의 가격보다 나중에 재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다.

빌린 재화만큼의 수량만큼 갚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이익을 본다. 물론 반대로 현재가보다 가격이 더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아이 안고 속죄 행렬 참여한 참회자



13일(현지 시간) 스페인 세비아에서 한 참회자가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속죄 행렬에 참여하고 있다. 종려 주일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전 주 일요일이다.

“아이들에 대한 폭격, 자위권 아냐”



13일(현지 시간)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이슬람주의 이당 자마아티 이슬라미(JI)가 주최한 반이스라엘·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과의 연대 집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전쟁 중 희생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상징하는 모의 시신을 들고 있다. 한 어린이가 들고 있는 손켓말에는 “아이들에 대한 폭격은 자위권이 아냐”라고 쓰여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